

당뇨병성 족부 궤양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일반적 추시

General Outcome of Diabetic Patients Hospitalized for Diabetic Foot Ulcer

국립의료원 정형외과

배서영 · 이돈석 · 백경영

❖ 서론

당뇨병성 족부 창상으로 입원했던 환자들의 일반적 추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대상 및 방법

2002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당뇨병성 족부 병변 중 창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했던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창상의 감염 여부, 하지 혈관 폐색 여부와 이에 대한 동반 수술 여부, 치료의 내용, 회복 기간, 환자의 자립도, 동반 질환, 보호자의 적극적 역할 유무, 환자의 나이 및 당뇨 유병 기간 등과 퇴원 후 재발, 생존 여부, 추시 지속 혹은 중단, 환자 자립 및 활동도 등 일반적 추시 결과를 알아보고 각 인자간의 인과관계 및 예후인자, 추시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았다.

❖ 결과

환자의 평균 연령은 63.6세, 변연 절제나 피부이식만으로 창상이 치유된 경우가 20.1%, 혈관 우회술 시행 후 호전된 경우가 14.6%, 절단이 필요했던 경우가 65.3%였고 그 중 26.4%는 하퇴절단이었고 38.9%는 족부의 부분절단이었다. 허혈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36.1에 불과하였고 84.7%는 창상의 감염을 동반하였다. 퇴원 후 추시 결과 34.48%에서 재발된 병변으로 입원치료를 요하였고 4예에서는 절단을 시행하였고 2예에서는 족부 병변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했던 경우는 68.1%에 불과하였고 입원 당시와 추시시의 환자의 활동도는 내과적 합병증으로 활동도가 떨어진 3예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다. 퇴원 후 지속적인 추시와 관리가 가능했던 경우는 36.7%에 불과하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12예를 제외하고도 47.2%에서 이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망군에서 나이, 치료방법, 허혈, 유병기간, 초기 활동도 등에 차이가 있었으나 그 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을 알기 어려웠고 감염이 주된 병인인 경우는 재발이 적고 허혈이 주된 경우는 재발이 많았다. 환자의 활동도에서 족부의 부분절단은 내원 전 활동도를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진 시 HbA1c는 적어도 정형외과적 예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연제

❖ 결론

당뇨병 환자에서 창상의 치료 후 장기 추시 결과나 예후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데 추시 중단이나 연락 두절, 전원 등으로 추시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환자 추시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장기적 예후나 유병률 등과 같은 기본적 자료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단어 | 당뇨병성 족부 병변, 환자의 추시